

일본에서의 소중한 시간

이화여자대학교

박시현

교환학생으로써 혼자 해외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경험은 독립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학교까지 오는 경험은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타국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주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일본어를 잘 하지 못했다면 자신감이 지금만큼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차대의 유학생 대상 수업인 일본어연습과 일본사정연습은 일본어 실력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어로 발표하는 경험이 여럿 있었는데, 이 덕분에 일본어로 대화할 때에 있어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열린 일본어카페나 언어교환 프로그램인 탄템을 통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표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생활 양식,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오차대의 일본인 친구와 튜터, 나와 같은 유학생 친구들과 사귀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사정연습 5 수업을 통해 혹시 내가 타인을 배타성을 지닌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타자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있어 평소에도 일본사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도교수님이신 칸다 선생님 덕분에 일본근세사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일본의 근세 사료를 읽고 관련 문헌을 찾아보는 내용이었는데, 본교에서는 사료를 읽는 수업이 거의 없는 터라 이 수업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문헌과 자료를 원본 언어로 접함으로써 일본사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이번 학기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님인 神田선생님과 튜터 奈菜子 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친절하게 지도해주시고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주신 萩原선생님과 학생센터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넓은 시각으로 한일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신 森山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와 일본어를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신 王선생님, 西坂선생님, 山口선생님, 崔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